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호 [루게 제22958호] 주제99 (2010)년 1월 6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흠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 서울류경수 제 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당장건 65푼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충천한 기세로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구분대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풍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해벽두에 부대에 모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구분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산골들을 뒤흔들며 뒤흔들며 울려퍼졌다.

걱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호모의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새로운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전투임무수행에 진입하여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있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사단과 구분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



명위업을 대를 이어 무장으로 이어가 완성하고야말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힘있게 선언하는 력사의 포성, 승리의 포성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땅크병들의 용맹한 훈련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땅크병들이 그 어떤 대적의 침공도 단숨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땅크부력의 강화발전에서 원종장의 역할을 수행한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은 언제나 싸움에서도 군위부대, 사상에서도 군위부대였다고 하시면서 105땅크사단과 같은 충성의 군위부대들이 당과 수령을 결렬히 옹호보위하였기때문에 우리 혁명이 만년시련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날마다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지금 인민군대앞에는 총대로 조국의 룡성번영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있다고 하시면서 부대군인들이 조국보위초

에도 훈훈하게 덤혀진 침실과 모든 문화교양수단들이 갖추어진 교양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지휘관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전투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후방공급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전방감시소에 오르시어 땅크훈련모습을 보시였다.

구분대에서는 당장건 65푼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푼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훈련성파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새해의 첫날부터 훈련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부대의 용감한 땅크병들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일격에 소멸할 멸적의 투지를 안고 위력한 포화력으로 《적진》을 산산이 짓부시며 노도처럼 전진하였다.

이날에 올린 장엄한 포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

소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구분대의 전체 군인들은 새해의 정초에 눈덮인 령길을 넘어서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오시어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항일의 7련대원들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조국방선을 목숨바쳐 사수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방송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선군혁명 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베네수엘라 칸다 플라 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리, 더>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다》의 요지를 최근 캄보자 《에프엠 90.5》 방송이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60호 주제99 (2010)년 1월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라선시를 특별시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1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2010년 1월 1일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설은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안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립장은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한 조선당과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해 조선이 주동적이며 대법한 조치들을 취하여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한데 대해 언급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

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또한 전체 조선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2010년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사설은 2010년의 총적인 투쟁방향을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으로 밝히면서 정당, 전국각적인 힘을 집중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발전시키며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것을 제때에 보장하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중국보도사와 《환구시보》,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CNN 방송과 신문들인 《워싱턴포스트》, 《인내슈널 헤럴드 트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지한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새 제강법언구를 성공시킨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보내신 특별감사가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홍석형 합경부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기사장 허재철, 5월 17일공작초급당비서 허창수 등이 토론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12월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철직장, 주철직장, 정련직장을 비롯한 생

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완전히 성공시키고 그 생산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대단족을 표시하신데 대해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성강의 로동계급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초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기업소로동계급을 선군시대 혁명적대교조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체

철에 의한 강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강제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주체철공정의 기술장비를 더욱 완비하고 산소용융로와 정련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그 만가등을 보장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생산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말하였다.

기업소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여러가지 식료가공품과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편의급양봉사까지의 편리운명을 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김책발 조선중앙통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방도를 토론했었다.

이들은 대상설비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산소분리기공작장, 산소분리기공작장, 유압기구공작장, 유압기구공작장을 맡고 내려가 대중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어번지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위원회와 모든 일군들이 새해 첫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직장과 작업반들을 맡고 나가 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기업소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업소의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작기와 산소분리기를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는것으로 대중의 믿음을 보답하자는 내용의 해설담화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런 빈틈없는 준비를 한 그들은 즉시 첫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당원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공작사실들로부터 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도 해주면서 대상설비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기술자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산소분리기공작장의 당, 행정경제계급정제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시호향주철직장에 내려간 당위원회책임일군은 주형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그는 우리가 흘리는 땀이 진하면 진할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우에 실린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다고, 하나의 주물품이라도 질적으로 잘 생산하는것이 바로 락원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주형공들이 애국의 더운 피로 심장을 펴며 뛰며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행정일군들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도 하고 대중의 심장을 꾀게 하는 전투속도들도 세분하면서 당원들과 로동자,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지난해 공장에 두번이나 찾아오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두고있다. 그들은 올해에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질 좋은 산소분리기 부품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고무추동하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비서,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공작사실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사업도 잘하고있다.

당원들이 뛰고 당세포비서들과 초급선일군들이 분발하니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공작사실의 내용을 자자구구 새기면서 자기들이 맡은 혁명적소를 더 굳건히 지켜갈 맹세로 가슴들을 불태우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대상설비생산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고무추동하는 화산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기에 지금 연합기업소의 그 어느 단위나 불타고 마냥 펄펄 끓어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